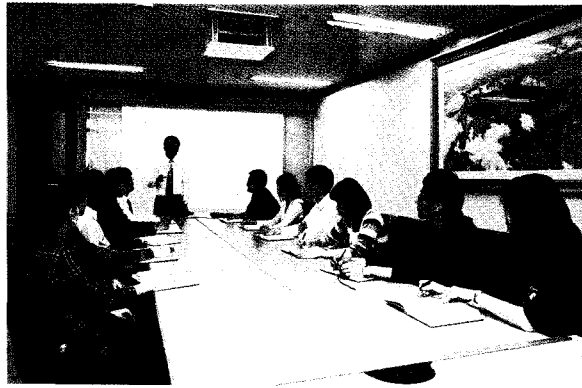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원한다. 비주일로 승부하는 디자인 콘텐츠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주)아사달(대표 서창녕, www.asadal.com)은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다. 직원 모두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좀 더 새롭고, 참신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열정적이기 때문이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도전정신을 기반 삼아 세계 속의 디지털 콘텐츠기업을 향한 큰 꿈을 꾸고 있는 (주)아사달을 찾았다.

글_ 정유경 · 사진_ 신상은

(주)아사달



—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태양이 되리라!

— 도전, 그리고 끊임 없는 도전

98년, 도메인 대행 등록 기업으로 시작한 (주)아사달. 현재는 웹호스팅, 디자인 콘텐츠, 홈페이지몰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사달의 서창녕 대표는 “그 당시 도메인 등록을 해주는 일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기도 했고, 그 시대에 필요한 일이기도 했다”고 전한다. 아사달(당시 아사달인터넷정보회사)의 도메인 등록 사업은 등록을 처리하는 속도보다 주문이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빠를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 후 회사를 아사달 인터넷(주)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법인으로 전환해 웹호스팅 사업을 시작했다. “개인 사업으로 시작해 법인이 되고,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다시 추스르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게 됐죠.” 그렇게 시작한 것이 디자인 콘텐츠 사업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사업 아이템을 파악하는 서 대표의 눈은 적중했다. 기발한 아이디어와 높은 완성도로 무장한 아사달의 디자인 콘텐츠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거침없이 성장하는 벤처기업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 직원은 보물 같은 존재

아사달은 사업 성공의 원천을 직원에서 찾는다. “직원은 기업엔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직원들의 성실도와 능력에 따라 성장할지, 쇠퇴할지가 결정되죠.” 서 대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직원들에 대한 믿음을 드러낸다. 직원들이 열심히 해줬기에 아사달이 계속 성장해 오고 있다는 것.

아사달은 능력이 있고, 성과를 보이는 직원에게는 보상을 아끼지 않는다. 자체적으로 디자인상을 수여하고,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등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더욱 분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그래서일까. 사실 회사를 책임지는 대표자가 직원들의 주인의식에 대해 칭찬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서 대표는 “아사달 직원들은 회사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는 주인의식이 투철하다” 라고 이야기한다. 서로 신뢰하는 대표자와 직원의 관계. 이것이 바로 아사달이 성장을 멈추지 않는 비결이 아닐까.



세계로 뻗어나가는 아사달의 디자인 콘텐츠

얼마 전 아사달은 일본에 디자인 콘텐츠 판매 법인 등록을 마쳤다. 작년 중국 연길에 R&D전문 법인을 세운 후 두 번째 해외진출이다. 서 대표는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해왔다. 그는 인재의 능력이 중요한 R&D 전문 해외법인을 세우기 위해 설립 일 년 전부터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현장답사를 했다. 그러다 선택한 곳이 바로 중국 연길이었다. 한국말이 가능하고 성실한 인재들이 많은데다, 인건비까지 저렴한 강점이 그를 매혹시킨 것. 이번에도 예상은 명중했다. 100여 명이 근무하는 연길 아사달은 성장 속도가 남달라 내년부터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설립한 일본의 법인은 디자인 콘텐츠 판매 기업이다. 일본은 콘텐츠 불법 사용이 많은 중국과 달리 콘텐츠 도용 위험이 거의 없다. 서 대표는 “일본 디자인 콘텐츠 시장은 한국보다 10배나 크다. 정품만을 사용하는 콘텐츠 문화가 성립돼 있어서 성공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보고 있다”고 전한다. 아사달은 일본 디자인 콘텐츠 시장의 주축으로 발전하기 위해 일본어로 된 사이트를 만들고 현지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 현지 디자인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대리점 형식으로 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끊임없이 성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 ‘아침의 땅’이라는 의미가 있는 아사달(阿斯達)답게 시작부터 지금까지 밝은 태양은 그들 곁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에서 더 나아가 중국, 일본까지 입지를 넓힌 아사달. 한국에서 시작해 세계를 비추는 디지털 콘텐츠 기업이 되겠다는 그들의 포부가 믿음직스럽기만 하다.

미니 인터뷰

(주) 아사달 서창녕 대표

mini interview

1. 회사 설립 배경이 궁금합니다.

취미로 홈페이지를 만들다가 도메인 등록 시장의 성장성을 보고 사업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다 교수가 되기 위해 미국 유학을 가게 됐고, 미국 현지에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이후 사업이 잘되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귀국해서 지금의 아사달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2. 회사 로고가 독특합니다. 회사 로고인 ‘삼죽오’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삼죽오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자주 등장하는 전설 속의 동물로서 태양을 상징합니다. 디지털 콘텐츠사업의 태양이 되겠다는 각오를 표현하기 위해 로고를 삼죽오로 결정했습니다.

3. 회사명인 아사달과 회사로고인 삼죽오를 보면 대표님의 남다른 민족성이 엿보입니다.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고유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4.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디자인 콘텐츠, 도메인, 웹호스팅, 솔루션물, 홈페이지물에서 나아가 더 많은 디지털 콘텐츠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도전을 거듭하는 아사달의 비상을 주목해주세요.

